

■ 개념어 사전 ■

1. 포그롬(погром)

포그롬(погром)은 ‘학살하다, 파괴하다’를 뜻하는 러시아어 동사(громить)에서 파생된 명사로 유대백과사전은 살해, 개인에 대한 폭력, 절도 및 재산 파괴, 방화를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한다. 러시아 역사에서 포그롬은 단지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유대인에게만 향했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포그롬이라는 용어는 극우민족주의집단이 유대인을 포함한 차르 정권에 대항하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계열 세력을 향해 자행했던 폭력 행위를 일컫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롬의 주된 희생자가 유대인이었기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이 용어는 주로 유대인에 대한 폭동 및 학살 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유대인에 대한 포그롬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881년까지 유대인이 주로 거주했던 러시아의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포그롬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1차 포그롬 시기로 구분한다. 이후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유대인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풍문이 돌면서 1881년에서 1884년에 걸쳐 러시아 남부, 남서부에서 발생한 포그롬은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도 인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포그롬과 다르다. 이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폭동은 2차 포그롬으로 구분되며 러시아에서 대규모 포그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1903년 베사라비아(현재의 몰도바)키시노프에서 발생한 포그롬과 1905년 1차 혁명기에 오데사를 비롯한 제국의 전역에서 이어진 포그롬을 3차 포그롬, 1917년 혁명 이후부터 내전기에 백군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민족주의자 또 일부 적군에 의해 발생한 포그롬을 4차 포그롬이라 이른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포그롬의 발생 원인과

주동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1881년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약 200여건의 포그롬의 결과 유대인 수십 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집을 잃었고 약 10만 명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사상자의 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 사법당국이 조사한 것과 유대인들이 직접 집계한 내용이 상당히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나 1903년 4월 키시뇨프에서 발생한 포그롬의 결과 이틀 동안 45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86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1500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그 후 1905년 10월 니콜라이 2세가 의회(두마) 창설을 허락하는 10월 선언을 발표한 이후 오데사 등지에서 러시아 왕정을 수호하려는 극우민족주의단체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포그롬을 진행하면서 유대인 사상자와 이들의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이와 함께 1881년에 발생한 포그롬은 러시아 유대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이주가 두드러졌는데 1881년부터 1890년까지 약 13만 5천명의 유대인이, 그리고 이후 1891년에서 1910년까지 약 1백만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등지고 미국으로 향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가운데 오데사의 레프 핀스커를 비롯한 몇몇 유대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옛 땅인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비록 소수였지만 이스라엘(당시 팔레스타인)로 이주하여 농경지를 일구며 정착하려 했던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2.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는 '이주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혼종되고 혼합되고 변형되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을 의미한다. 용어로서 '호모 미그란스'는 1951년 창립된 유럽이주위원회(ICE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European Migration)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간한 카툰 모음집의 제목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 지오바니 토토라(Giovanni Tortora)는 인류의 이주가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되었고, 우주로의 이주로 연결 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언급을 했다. 이후 독일 학자 클라우스 바데(Klaus J. Bade)가 자신의 저서 Homo Migrans Wanderungen: aus und nach Deutschland(1994)에서 '이주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Homo Migrans'를 사용했다. 아직은 학계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2009년 창립된 이민인종연구회의 e-journal 제호가 Homo Migrans이다.

(황혜성, 한성대학교)